

# '동아시아 평화·번영 위한 유엔'

### 전북대,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세미나 공동 개최 세계 평화구축·유지 위한 동아시아 기여 등 토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국유엔체제학회(회장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와 동아시아 유엔체제학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유엔'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중일 3국 유엔 전문가들이 참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날 개회사에서 양오봉 총장은 "전

북대의 성공적인 글로벌대학30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한중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일 축사자로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보타나는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축사에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은 전라북도의 관심

사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기조강연자 김숙 전 유엔대사는 "다양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중일이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회식 후 진행된 5개 세션에서 유엔 전문가 50여 명은 '세계 평화구축과 평화유지를 위한 동아시아의 기여', '포스트 팬데믹 시대, 유엔의 역할', 'SDGs 달성과 유엔의 기여'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최동주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은 "이번 세미나 논의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에 전달해 성공적인 수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전북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전북대학교는 대학개혁 선도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글로벌 혁신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유엔'을 주제로 동아시아 유엔체제학회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 전북대에는 몽골 델게르무르 종합 초중고등학교 Baasanjav Gantulga 교장을 비롯한 4곳의 초중고등학교 교장단이 전북대를 방문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몽골 유학생 유치 '팔 걷어'

### 전북대, 몽골 주요 초중고교 4곳과 협약 체결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외국 유학생 5,000명 유치에 나서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몽골의 초·중·고등학교들과 연대를 통해 몽골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1일과 22일 전북대에는 몽골 델게르무르 종합 초중고등학교 Baasanjav Gantulga 교장을 비롯한 4곳의 초중고등학교 교장단이 전북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북대와 전주 일원을 방문해 전북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전주 한옥마을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 전북대를 찾은 이들은 양오봉 총장과 조희립 국제처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북대 조희립 국제처장은 몽골 초중고교 교장단에게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한 전북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과 해외 대학과의 협력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고, 몽골 교장단들도 몽골의 우수 학생들을 전북대

에 보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전북대 조희립 국제처장과 몽골 교장단은 우수 몽골 학생을 전북대에 보내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식 협약식도 체결했다.

이어 이튿날인 22일에는 양오봉 총장이 직접 몽골 교장단을 영접해 환담을 나눴으며, 몽골 유학생 유치 방안과 함께 몽골 초중고등학교에 전북대학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는 시간을 추가로 논의했다.

조희립 국제처장은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연 확대 등을 모색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5천 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전북지역에서 정주할 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몽골의 주요 초중고교 교장단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몽골의 우수 학생들이 전북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교육청, 농촌유학생 모집 '박차'

### 서울 학부모들 대상 '농촌유학 설명회'... 큰 관심 얻어 서울시교육청과 생태체험교육 활성화 상호 교류·협력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농촌유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서울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서울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이 단독으로 개최한 첫 농촌유학 설명회로, 서울시 학부모 및 학생 350여 명이 참여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 농촌유학 운영 내용,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농촌유학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석해 공동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도시와 농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생태체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전북 12개 지역, 30개 학교에서 2024학년도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전북 농촌유학은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생중심의 교육이다.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전북 농촌유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강형욱 훈련사 초청 특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은 28일 오후 6시 30분 전주대 수퍼스타홀에서 강형욱 훈련사와 함께 하는 '반려견과 함께 사는 법'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민들이 반려견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보통컴퍼니 대표)를 강사로 초청하여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수퍼스타홀에서 선착순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의 관계 형성법과 반려인에 대한 펫토키트 교육 및 반려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의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반려동물학과의 비릇해 미래융합대학 학과와 학부의 홍보부스도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의 생생한 경험을 기반한 입학 상담이 가능하며, 미래융합대학 홍보물을 받아 볼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자원연합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 전북대 정윤하 석사과정생

전북대학교 정윤하 석사과정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 지도교수 오주원)이 최근 열린 추계자원연합학술대회에서 학생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 대학원생은 '미국 유타 지열발전 탄성과 영상화 연구 현황과 국제공동연구 계획'으로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 유타 FORGE(Frontier Observatory for Research in Geothermal Energy) 프로젝트의 연구현황과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Lawrence Berkeley Laboratory, LBNL)와 MIT 대학



의 공동연구팀과의 공동연구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유상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 및 영상화 기술 실증 및 지탑화를 위한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지구물리탐사 및 모니터링 글로벌 혁신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올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Nori Nakata 연구그룹'과 국제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김재훈 기자

## 도교육청 - 지방공무원노조연대, 2023 노사협의회 개최식

### 임금·복지 등 36개 의제 협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단체협약에 따른 2023년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식을 지난 24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원활한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 진행을 위해 대표협의회의와 실무협의회의로 기능을 나누고 해당 안전에 따라 참석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협의회의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사협의회 절차 및 방법 등을 합의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임금, 복지, 노동조건, 교육훈련 등 지방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총 36개 의제에 대해 협



전북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단체협약에 따른 2023년 지방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식을 지난 24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학생과 교육활동 지원에 최우선을 두는 지방공무원의 노고에 고맙

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디지털 기술 활용 학생건강증진 돕는다

### 도교육청, 내달까지 디지털 융합 건강생활실천 체험형 교육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내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디지털 융합 건강생활실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융합 건강생활실천 체험형 교육'은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오감형 건강증진 체험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시력과 구강 건강 △근간강생 실천 및 심폐소생술 △비만 예방 및 체형 균형 등 세 가지 건강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건강 분야를 AR·VR 교구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몰입감 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김재훈 기자

### 우석대 교양대학, 도내

### 대학생 대상 문화역사 탐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교양대학이 24일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역사 탐방 및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전북권역 교양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교양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우석대학교와 전북지역 5개 대학(군산대·예수대·원광대·한일장신대·호원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대학 재학생 50여 명은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주와 만경강의 역사 문화'를 주제로 조법종 교양대학장으로 부터 특강을 들었다.

/원주=염재복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내일 미산초 이전 제안설명회

### 에코시티 2단계 개발부지 내 제3초 부지 이전·신설 설명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이 전주미산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지역 주민 및 학교구성원 대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주민설명회는 28일 오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1층 시청각실에서, 학교 구성원 설명회는 같은날 오후 미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설명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의 존속을 계승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에코시티 2단계 개발부지 내 (가칭)제3초 부지로의 이전·신설을 설명하는 자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는 농산어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3년 4월 기준 전주미산초 학생수는 48명(임용학구 19명)에 불과하고, 향후 취학대상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도 작은학교 학생

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아주작은학교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전북에서도 전교생 10명 미만의 아주작은학교 중 김제 금남초와 화물초는 원형초로, 부안 계화초는 참복초로, 주산중은 부안중으로 통합이 확정됐다.

전주미산초 이전이 확정되면 학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10년간 6,000만원 씩 총 6억원이 지원된다.

또 현재 통학구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학생 맞춤형 공간 및 스마트 교실을 조성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제안설명회를 통해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구성원 찬반 투표를 거쳐 12월 중 이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